

## 2단계 765kV '준비완료'

신안성 T/L에 설치될 765kV 1회선 송전선로 추진계획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한전 전력계통건설처와 전력연구원, 효성 등은 지난 18일 효성 조치원공장에서 '765kV 1회선 송전철탑 하중시험'을 성공리에 마치고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이날 시연회에는 김신철 한전 전력계통건설처장과 심순보 서울전력관리처장, 최원수 대전전력관리처장, 안정식 전력연구원 전력계통연구실장, 왕동근 전기공사협회 기술경영연구원 부원장 등 200여명의 관계자들이 참석해 뜨거운 관심을 반영했다.

765kV 1회선 송전선로 추진계획은 지난 99년 장기 송변전 설비계획에 따라 765kV 신안성 T/L구간의 기본계획이 2회선에서 1회선으로 변경되면서 시작, 이날 1회선 송전철탑 하중시험을 실시하게 된 것이다.

한편 이번 765kV 1회선 송전선로 건설은 ▲기술검토와 기본설계용역은 한국전력기술(주) ▲철탑설계와 제작연구개발은 성진지오텍(주) ▲실증시험선로 구축공사는 현대건설(주) ▲송전철탑 하중시험은 (주)효성 ▲송전선로용 V련애자장치개발은 세명전기공업(주) 등이 각각 맡았다.

## 구역사업자 신설된다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전기를 생산·판매하는 구역사업자가 신설될 전망이다.

지난 19일 국회 산업자원위원회는 이근진 의원(한나라당)이 발의한 전기사업법증개정법률안을 원안대로 통과시켰다.

이근진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따르면 일정한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구역전기사업자는 특

정한 공급구역에 한해 전기를 생산,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직접 수요처에 공급할 수 있게 된다. 다만 구역전기사업자는 이 구역 내의 수요변동에 따라 잉여전력 또는 부족전력을 전력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안을 제출한 이근진 의원은 “구역사업자의 신설은 입지난을 겪고 있는 발전소와 전력설비의 건설 등 전원개발을 분산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며 “이는 전력계통의 안정과 원활한 전력수급을 보장할 것”이라고 제안 이유를 설명했다.

이 법안이 오는 12월 본회의에서 통과될 경우 30만kW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춘 자는 구역사업자로서 자격을 갖추게 된다. 하지만 현재 한전이 전기를 판매하고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영업활동을 펼칠 수 없으며, 중전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영업구역과 신설 구역에 한해 영업이 가능하다.

이외에도 보완공급약관을 마련, 구역전기사업자 신설로 발생할 수 있는 한전의 손실분을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조정할 계획이다.

임태희 의원이 발의한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과 관련, 전기사업법중개정법률안도 이날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 안에 따르면 산자부 장관은 전기설비로부터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전자파 인체보호기준, 강도측정기준 및 측정방법을 고시해야 한다.

또 전기사업자는 주택가와 교육시설을 비롯한 인구밀집지역을 피해 전기설비를 설치해야 하며, 원활한 전기공급을 위해 불가피하게 인구밀집지역에 설치할 경우에도 전자파 발생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해야 한다.

하지만 전력설비에서 발생하는 전자파가 인체에 유해하다는 어떠한 과학적 근거가 없고, 원활한 전력공급을 위해 인구밀집지역 인근에 전력설비를 건설해야 한다는 점에서 법통과까지는 많은 논란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 중기청, 해외규격인증사업 워크숍

중소기업청은 지난 17일 올해의 해외규격인증 사업 추진 성과와 2004년 지원확대 방안을 토론했다는 워크숍을 기업기술연구원 원장과 컨설팅기관 대표 등 70여명의 관련 전문가가 참석한 가운데 과천 기술표준원 중강당에서 열었다.

이번 워크숍은 최근 선진국들이 환경과 안전 등을 중심으로 기준규격을 강화, 비관세 무역장벽으

로 작용함에 따라 중소기업의 수출증대 애로해소에 적극 대처할 수 있도록 사업의 효과적인 개선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마련됐다.

또 사업지원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올해에 1개사 1품목 지원을 2품목으로 늘리고 이에 따른 지원금도 1개사 700만원 한도에서 1천만원 한도로 높이는 방안 등이 논의됐다.

특히 급변하는 경제환경과 수출바이어 요구 등으로 인한 수출 중소기업의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현재 3회에 국한하는 지원시기를 연중 수시로 접수토록 하는 한편, 소규모 창업 중소기업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신규로 참여하는 중소기업에 대한 가점을 부여하는 등 사업의 효율성 제고 및 중소기업의 인증획득 용이를 위한 개선방안이 논의됐다.

중기청은 이번 워크숍 결과를 토대로 이 사업의 확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관련 정보를 인터넷으로 제공하는 한편 전국 중소기업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내년도 사업순회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 전기산업분야 수출유망중기 20개 업체 선정

중소기업청이 2003년 상반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한 1,000개 중소기업 가운데 전기산업 분야의 중소제조업체는 20개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기산업분야의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품목으로는 변압기와 계측기, 발전기 등 8개품목이 선정됐다.

변압기 품목가운데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로는 △신한전기공업(주) △(주)한창트랜스 △신성공업(주) △서광전기공업(주) △선광하이텍 △케이피 일렉트릭 △삼일변압기(주) △한영전기공업(주) △보국전기공업(주) 등 9개 업체가 선정됐다.

또 계측기 품목으로 선정된 업체는 △금호미터텍(주) △(주)피에스디테크 △(주)티엠에스코리아 △다가전자(주) △(주)아이디알시스템 △(주)서진인스텍 등 6개 업체가 선정됐다.

이밖에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로는 △동명전기(주)(조명등기구) △(주)유니콘(전원공급장치) △(주)화신(전기컨트롤박스) △유성계전(전력보호기기) △(주)코윈텍(풍력발전기) 등 5개 업체가 선정됐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들은 중소기업은행, 수출입은행, 한미은행, 한국은행 등의 금융기관과 함께 16개 수출유관기관의 소관 수출지원사항의 우대지원을 받게 된다.

수출유망 중소기업으로 선정된 업체는 지정 받은 날부터 2년간 수출유관기관으로부터 57가지 항목에 따라 지원을 받게 되어 수출중소기업으로 육성된다.



## 중기청, 해외시장개척요원 양성사업 안내

### ■ 사업목적

수출전문인력 부족으로 애로를 겪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하여 중소기업 근로자 등을 선발, 해외에 파견하여 무역인력으로 양성

### ■ 사업내용

- ∴ 지원대상 : 중소기업근로자, 미취업자(100명)
- ∴ 선발기준
  - 현지 언어구사가 가능한 자를 중심으로 수출마인드, 수출의지 등을 중점 평가 (중소기업 근로자 우대)
- ∴ 지원내용
  - 국내교육, 항공료, 파견관리비는 전액 국고지원
  - 현지 체재비 및 활동비의 80 ~ 100%(약 100 ~ 120만원) 지원
- ∴ 세부사업 내용
  - 1개월 국내 무역실무 교육, 5월간 해외에서 무역실무지식 습득

### ■ 문의처

- ∴ 판로지원과(042-481-4467)
- 중기청수출지원센터([www.exportcenter.go.kr](http://www.exportcenter.go.kr) → 공지사항)